

영국 에너지 요금 13% 인상

7월부터 요금 상한제 올라... 중동 전쟁 여파, 가계 부담 가중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오는 7월부터 영국 수백만 가구의 연간 가정용 에너지 요금이 13% 인상될 전망이다.

영국 에너지 규제기관인 오프젼(Ofgem)은 이번 전쟁의 여파로 평균적인 가스·전기 사용 가구의 연간 요금이 221파운드 올라 총 1,862파운드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인상은 이란이 전 세계 석유와 가스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도매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요금 상한제 인상은 변동 요금제를 사용하는 영국 내 3,300만 가구에 영향을 미친다. 가구당 월평균 18파운드를 추가 부담하게 되며, 특히 가스 요금은 24%, 전기 요금은

5%씩 각각 인상된다.

에너지 공급업체들은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가을과 겨울에 요금이 더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탐 자비스 오프젼 최고경영자(CEO)는 “요금 인상으로 많은 이들의 우려가 커질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여름철에는 보통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지만, 고정 요금제를 알아보거나 결제 방식을 변경하는 등 비용을 관리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편집부

자동출입국심사대

영국 공항 E-gate 이용 연령 8세로 확대

앞으로 해외여행 후 영국으로 입국하는 8~9세 어린이도 자동출입국심사대(E-gate)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영국 내무부는 오는 7월 8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최저 연령을 기존 10세에서 8세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다만, 바이오메트릭(생체인식) 스캐너가 얼굴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아동의 키가 최소 120cm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성인을 동반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150만 명의 아동이 추가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여름 휴가철을 맞은 더 많은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한층 더 빠르고 편리하게 귀국길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2019년 5월 20일부터 영국의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를 적



용받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국경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영국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외국인 입국자에게 디지털 여행 허가를 부여하는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전격 도입한 바 있다.

이 제도에 따라 한국, 캐나다, 호주 등 기존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의 여행객도 현재 20파운드의 수수료를 내고 ETA를 발급받아야 영국에 입국할 수 있다. 편집부

김주희 씨, 재영한인회 신임 회장 선출

재영한인회는 24일 (일) 출범식을 갖고 제1대 신임 회장으로 김주희 씨를 추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영한인회의 출범과 김 회장 선출은 뜻을 같이 하는 원로 및 단

본지 다음호 발행 6월 11일

체장들과 일반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김 회장은 “찾아가는 맞춤형 활동으로 재영한인회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인 여러분들의 동참과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포부를 밝혔다.

(10면 참조) 기사 및 사진 제공 : 재영한인회



바로잡습니다

4월 30일자 3면 기사와 관련, 김흥중 신임 대사 프로필에서 ‘옥스포드대 명예교수’는 ‘Honorary High Table Member’의 잘못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박혜경 시인 20 Buttercup (미나리아재비)	아이러브스테이지 22 런던 공연장 에티켓	RIBA 런던 어워드 입상 26 영국왕립건축가협회상 강대화	박상도 목사 28 잃어버린 ‘영혼의 안식’을 찾아서 ①	인터뷰 31 임혜정 킹스턴 부시장
---------------------------------	---------------------------	-------------------------------------	-----------------------------------	-----------------------

하나로 익스프레스
 (전세계 특송 전문)
 -항공/해상/창고보관/이사-
 ☎020 8949 6923
 07940 554 685
 EU/UK 정식 수출·입면허 허가업체(EORI No. 보유)

SB 모기지
 Financial Services
 07904 571 782
 baesbuk@gmail.com
 WhatsApp available 23면 참조

오랜 전통과 신뢰 SINCE 1988
원한의원
 British Acupuncture Council
 원장 김원규 한약/침/보약/뜸
 MRCHM 한의사 MBACC 영국국가공인 침구사
 020 8949 3888 / 07710 627 333
 56 Cambridge Rd, New Malden KT3 3QL

ggm 지지엠

 ♥맛있는... 직접만든 순대, 순대국
 ☎ 020 8337 7999

★★★★★ KOREAN RESTAURANT
강남
 open 월요일 (점심휴무) 17~23
 수요일 (점심휴무) 17~23
 목요일 (점심휴무) 17~23
 금요일 12~15 / 17~23
 토·일요일 종일영업 12~23
 화요일은 쉽니다

GREEN FARM
 '푸른농원' 상표를 확인하세요!
떡, 콩나물 전문
 07379 960 460 / 020 8417 1123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려면
 세관/유럽 배송 문의 환영
 www.lpouk.com
 런던우체국
 020 8569 2588 / 0789 790 2044

대한보험 차·집·Shop 모든 상업보험 FCA 등록업체
 On-Line 보험? 대한보험과 비교하십시오!
 한국 무사고 경력 100% 인정
 ☎ 0208 715 0120
 jinnydaehan@gmail.com
 63 High St, New Malden KT3 4BT

C&C Express
 국내·해외 이사·Delivery
 안티 & 커머셜 (수출·수입)
 07740 283 409
 07833 671 027

미소 하우스
 민박/하숙, 뉴몰든역 3분 고급 단독 주택
 출장 주재 연수 여행, Wifi, 조식 석식 한식
 일인 욕실룸 / 넓은 가족룸, 카드결제 가능
 카톡 ID : misohouse
0782 333 6807

워크비자/스폰서쉽 18면 참조
 지사설립/주재원비자
 결혼비자/영주권/시민권
 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영국이민센터
 ☎ 079 4450 5952 (왓츠앱)
 ukemin@hotmail.com / www.ukimin.com
 카톡 ID : johnhsuh (문자 및 음성통화 상담가능)

가치 있는 상품을 만나는 스토어 웰빙 카페
WELL-BEING CAFE
 07842 758 697
프리미엄 딸따냥 발패치
 네오돔 3000 기우스 동전패치
 £15
 Made in Korea

A3 MOTORZ
 튜닝 / 타이밍벨트 / 오일교환
 타이어 교환·펑크 / 전기문제
 New Malden KT3 3NE
 ☎ 07540 142 017
 기술자 엄관식

시나이 모터스
 SYNAI MOTORS

 도색 전문
 보험·수리
 MOT 대행
 020 8241 0836 / 07880 700 492
 167 Surbiton Hill Park, Surbiton KT5 8EJ

재영한인회 설립에 즈음하여



재영한인회를 설립하면서

2026년 5월 24일 (일), 재영한인회가 한인 원로 및 단체장과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많은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한인사회 활동을 약속하며 힘찬 도약을 내딛었다. 재영한인회 설립에 참여한 한인들은 신임 회장으로 김주희 씨를 만장일치로 선출했고, 김 신임 회장은 재영한인회의 발전을 위해 5,000파운드를 흔쾌히 기부했다.

재영한인회의 주요 목표는 '찾아가는 한인회'로 활동 범위를 넓혀 재외동포청의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바자회 등을 통한 수익창출로 국내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활동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보여주기식 행사를 지양하고 소외되는 사람 없이 한인사회를 위한 활동에 관심 있는 한인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도록, 포용력 있는 한인 단체의 모범이 되고자 한다. 재영 한인 여러분의 동참과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날 모임에서 김 신임 회장과 참석자들은 향후 한인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다른 단체들과 차별화 방안, 그리고 현재 한인 사회에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중지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설립식을 마친 후에는 김 신임 회장 집 정원에서 5시간 가까이 바비큐를 겸한 축하 파티가 이어졌고 영국과 해외 생활의 희로애락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주희 신임 회장 프로필

김 신임 회장은 1995년 2월 1일, 남편 김영희 씨(현 대한보험 대표)의 동아건설 금융팀 주재원 발령에 따라 5살 3살 두딸을 데리고 영국땅을 밟았다. 대구여상을 졸업하고 철강회사에 입사하여 판매실적 1위의 자리를 지키기도 했다.

1989년 결혼한 김 신임 회장은 이후 우울증과 유방암 3기라는 큰 시련을 극복해 내는 과정에서 '사람이 선물이다'라는 큰 깨달음을 얻은 뒤 사회봉사를 시작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함께 나누며 쓰는 돈은 그 값어치가 백 배, 천 배의 보람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1997년 6월에는 막내 아들을 얻게되고 현재 세 자녀는 모두 전문직 및 CEO로 훌륭하게 자리잡았다.

김 신임 회장은 "그동안 받은 축복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사는 영국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한인사회를 이루는 데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고자 한인회장직을 수락했다"고 포부를 밝혔다.

해외동포들을 위한 대림성모병원 해외종합건강검진



19년간의 해외검진 노하우 | 최고의 의료진 | 최첨단 의료장비 | 부담없는 비용

해외종합검진 혜택

- ① 로얄종합검진 및 입원종합검진시 1인실 배정
- ② 세면도구제공
- ③ 검사결과지 및 영상 CD제공

당일종합검진

남 98만원 | 여 111만원 (40세 미만) 113만원 (40세 이상)

의사 상담(검사 전후), inbody, 안저검사, 청력검사, 심전도, 구강검사, 위내시경(수면 선택), 헬리코박터균 검사(CLO test), 흉부X-선검사, 골밀도, 저선량흉부CT, 두부CT, 뇌동맥류 위험 평가, 복부초음파, 갑상선초음파, 전립선초음파(남), 골반초음파(여), 유방촬영(여 40세 이상), 유방초음파(여), 자궁경부세포진(여)
혈액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5종(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여), 전립선암(남)), 갑상선기능, 빈혈, 간염검사(A형/B형/C형), 간기능, 담관검사, 고지혈증, 당뇨, 신장기능, 통풍, 칼슘, 혈액형검사, 전해질검사, 감염 및 성병검사,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질환, 심근질환, 혈액학검사 및 백혈구 백분율, 소변검사 10종

입원종합검진

남 138만원 | 여 151만원 (40세 미만) 153만원 (40세 이상)

당일검진 포함

+ 폐기능, 복부비만CT, 대장내시경, 인유두종바이러스(여)
+ 혈액추가(빈혈정밀, 비타민D) + 비타민B & 비타민C(영양제) 주사 제공 + 1인실 제공

로얄종합검진

남 285만원 | 여 298만원 (40세 미만) 300만원 (40세 이상)

입원검진 포함

+ 뇌MRI, 뇌MRA(두부CT 대체), 척추 MRI(경추, 흉추, 요추, 천추)
+ 복부CT, 심장CT(관상동맥/조영제) + 경동맥초음파, 심장초음파 + 혈액추가(심혈관질환)



대림성모병원
DAERIM SAINT MARY'S HOSPITAL
홈페이지: www.drh.co.kr
07442
서울시 영등포구 시흥대로657

종합검진 상담 및 예약 안내

건강증진센터	대표전화	+82-(0)2-829-9359
	HP	+82-(0)10-2882-7205
	Kakao ID	drh_check
	E-mail	2024091@drh.co.kr

태평양에 '슈퍼 엘니뇨' 경고음, 지구촌 최고기온 우려

수온 상승 속도 이례적... 2027년 세계 기온 사상 최고치 될 수도

태평양에서 형성 중인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내년 지구촌이 역대 최고 기온과 기상이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영국 BBC방송은 14일 미국 국립 해양대기국(NOAA)과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등의 전망을 인용해 올가을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다.

현재 태평양 일부 지역의 해수면 온도는 이미 섭씨 0.5도 이상 상승한 상태다.

특히 최근 수주간 열대 태평양의 수온 상승 속도는 이례적으로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수치예보 모델 중 절반 이상도 올가을 태평양 특정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5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부 예측에서는 상승 폭이 3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현재까지 최고 기록인 1877년의 2.7도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1877년의 강력한 엘니뇨는 약 18개월 동안 이어졌고, 아시아와 브라질, 아프리카 전역에 극심한 가뭄과 대기근을 초래해 수백만 명이 사망했다.



올해 엘니뇨로 인한 고온 현상이 발생한 온두라스의 풍경

현재 형성되고 있는 강력한 엘니뇨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영국 레딩대학의 리즈 스티븐스 교수는 "이번 엘니뇨가 매우 강한 수준으로 발달할 경우 내년 세계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2023~2024년 엘니뇨 이후 지구촌은 역대 가장 더운 해를 경험했다.

엘니뇨는 지역별로 극단적 기상 현상도 유발한다.

북부 페루와 남부 에콰도르, 동아

프리카 등에서는 홍수 가능성이 커지고, 호주와 인도네시아, 남미 북부 지역에서는 가뭄과 산불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기상이변은 농업 생산량 감소와 세계 식량 공급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스티븐스 교수는 "이미 빈곤 상태에 놓인 인구가 늘어난 상황에서 엘니뇨로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해 농작물 생산량까지 감소하면 식료품 가격은 더욱 상승하게 된다"며 인도 주의적 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연합뉴스

올여름이 고비... 경고음 더 커진 세계 에너지 위기

냉방·항공 수요↑... 76개국 에너지 위기 긴급대책 도입

중동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올여름 고비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7일 보도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가 시작된 이후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를 도입한 국가는 76개국으로, 3월 말 55개국에서 더 늘어났다.

석유시장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석유가 항로를 찾지 못하면 올여름 가격 급등이 또 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각국 정부도 이에 대비하고 있다.

북반구가 여름을 맞아 냉방과 휴가철 항공 수요가 늘면 원유와 정제유 공급 부담이 크게 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IEA는 3~6월 세계 석유 소비가 생산보다 하루 평균 약 600만배럴 많을 것으로 추산한다. 전략적 비축 원유가 하루 200만배럴 이상 방출되고 있지만, 상당량은 7월 말 종료가 예정돼 있다.

세계 재고는 전쟁 발발 이후로 거의 3억8천만배럴 감소했다.

가장 큰 압박의 시점이 언제 닥칠지 정확한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30억배럴 넘는 석유 재고 대부분은 석유 기업이나 트레이딩 업체, 정유소에 있는데, 이런 '재고'의 대부분은 시스템의 일부다. 압력 유지를 위해 송유관에 최소한의 양을 남겨둬야 하고, 정유소도 끊기지 않고 원유 공급을 받아야 하며, 저장 탱크도 손상을 피하려면 완전히 비워선 안 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재고가 0이 되기 훨씬 전에 시장이 마비될 것이라고 말한다.

에너지 위기가 세계 경제를 경기 침체로 몰아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

도 계속되고 있다.

펀드 관리업체 애버딘의 폴 디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180달러까지 올라 유럽과 아시아 국가에서 물가 급등과 경기침체가 벌어질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포스톨로스 치치코스타스 유럽 연합(EU) 교통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4일 그리스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전쟁이 몇 주 내로 끝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지 않으면 세계 경제침체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Buttercup (미나리아재비)

박혜경

순진한 햇살이
잔디밭을 buttercup으로
수놓은 날,

언덕 위 다프니 집,
초인종을
허겁지겁 누르는
나를 만난다.

"지금 막 잔디밭에서
배고픈 여우가
춤 추었어요."

다프니는 웃으며,
치즈 한 덩이를 내주었다.

나이 열여섯,
GCSE에 all A를 맞은 날,

법정에서 부모의 이혼 증인석에 섰고,
다시는 아버지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고,

지구 상에 우두커니
홀로 섰던 그녀.

내 흰 손목을 그녀의 손목에 대며,
"도대체 누가 백인일까?" 라고 했다.

진한 우정을 느낀
첫 이국인인 그녀는
봄마다 식탁에 Buttercup을 꽂곤 했다.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
노랑별이 되었을까?

Buttercup 한 뿌리를 화분에 심었더니,
키가 훌쩍 크더니,
내게 속삭인다.

"나 다프니, 여기 있거든!"

작가소개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국제 펜클럽 회원, 재외동포 문학상 시부문 2회 입상. 시집 <토끼장이> <그 사람은 뜰 안에 있고 나는 뜰 밖에서 있다>

펄펄 끓는 유럽, 영국·프랑스서 가장 더운 5월 기록

열돔현상에 한여름 폭염... 스페인·포르투갈·이탈리아도 "폭염·건강 주의"

유럽이 5월 때 이른 폭염을 겪고 있다.

25일 영국 런던의 낮 최고 기온이 33.5도를 넘어서면서 역대 5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고 B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앞선 최고 기록은 1922년의 32.8도였다.

전날 잉글랜드 8개 지역이 공식적인 폭염 조건을 넘어섰으며, 웨일스와 북아일랜드에서 각각 27.4도, 23.4도로 연중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대부분의 웨일스와 잉글랜드 북부 지역에선 사흘 연속 25도, 나머지 지역은 사흘 연속 26~28도를 넘으면 폭염으로 기록된다.

영국 기상청의 기상학자 톰 모건은 "영국에서는 여름에도 35도를 넘는 일이 드물고 5월에 35도에 근접하는 건 역사적으로 드물다"며 "밤에도 기온이 20도 위에 머물면서 숙면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보건안전청(UKHS)은 지난 22일 웨스트 미들랜즈, 잉글랜드 동부, 런던 등지에 폭염 예보에 따른 경보 등급 중 두 번째로 높은 주황을, 다른 지역에 그보다 한단계 낮은 황색경보를 발령했다. 주황과 황색경

보가 발령된 시기로는 역대 가장 빠른 것이다.

스페인, 포르투갈, 스페인에서도 주말을 거쳐 이번 주에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AFP, AP 통신에 따르면 24일 북부를 포함해 프랑스 최소 10개 지역에서 5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지난 23일에는 파리 낮기온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30도를 넘어 31.9도까지 올랐다.

24일 파리에서 아마추어 달리기 경주에 나선 남성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병원에 실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리옹에서도 이날 스포츠 경기 중 여성 한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다.

파리 퐁라방가로스에서는 프랑스오픈 테니스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선수와 관객 모두 더위와 싸우고 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선수들을 세트가 바뀔 때마다 목에 얼음주머니를 두르고 직원들이 클레이 코트에 물을 뿌릴 때 관객들이 물 좀 뿌려달라고 요청하는 모습도 보였다.

영국해협 맞은편 프랑스 브리타



니 지역에선 35도, 남부 프랑스는 36~37도 기온이 예보됐다.

브리타니에선 황색 폭염 경보도 내려졌다. 프랑스 기상청 관계자는 2004년 관련 시스템이 도입된 후 5월에 황색 경보가 발령된 건 처음이라고 전했다.

앞서 프랑스 기상청은 지난 22일 예년 평균보다 12도 이상 높은 기온이 약 한 주간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

했다.

프랑스 기상청의 파트릭 갈루아는 "5월에 보지 못했던 폭염"이라며 "이른 시기에 찾아왔고 강도가 높으며 오래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르투갈 일부 지역 최고 기온은 40도에, 스페인 남부 지역은 38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 보건 당국도 일부 지역에 폭염에 따른 건강 경보를 발령했다.

이탈리아에서는 로마를 포함한 라치오지역에서는 낮 12시30분~4시 농장이나 공사장, 물류 현장 등 지속적으로 햇볕에 노출되는 작업을 제한하라는 당국 권고가 나왔다. 지난해에는 5월 30일부터 비슷한 조치가 시작됐다.

이번 유럽 폭염은 북아프리카에서 북상한 따뜻한 공기가 서유럽 상공의 고기압 시스템에 갇힌 열돔 현상에 따른 것이다. 폴리티코는 "냄비에 뚜껑을 덮은 것과 비슷하게 더운 공기가 아래로 눌리면서 여러 지역을 굽는 것과 같은 영향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로 이같은 이상 기상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기상학자들은 유럽 북부 곳곳의 토양에서 높은 기온이 수분을 빼앗아가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몇달간 폭염이 더 잦아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대기 G2'의 기상학자 에이미 호지슨은 "고기압 시스템이 정체될 수 있고, 이는 열을 증폭하고 기온을 끌어올리며 강우를 더 억제하게 된다"며 "악순환"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Hanaro Express
전세계 특송 전문

하나로 익스프레스

www.hanaroexpressuk.com

Tel: +44) 0208 949 6923

Mobile: +44) 07940 554 685

Kakao Talk: hanaroexpress (24 상담가능)

Email: hanaroexpressuk@gmail.com

Address: 29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UK [KT3 4BY]

- EU/UK 정식 수출입 면허 허가 업체 (EORI Number 보유)
- VAT 등록 업체 (사업자에 한하여 부가세 20% 환급 가능)
- 카드결제 가능
- 전시회 관련, 미술작품 (그림, 포트폴리오, 조소)



김준영의 I Love Stage 아이 러브 스테이지

런던 공연장 에티켓- 배우들이 인사(커튼콜)할 때 촬영해도 되나?

공연이 끝난다. 배우들은 마지막 장면의 감정을 간신히 붙잡은 채 무대 앞으로 걸어온다. 객석 조명이 조금 밝아지는 순간, 극장 안에는 박수보다 먼저 수백 개의 휴대폰 화면이 떠오른다. 어떤 배우들은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관객의 얼굴보다 카메라 렌즈가 더 많이 보인다”고. 한국 공연장에서 가장 빠르게 퍼진 문화 중 하나는 커튼콜 촬영이다.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운 풍경이 됐다. 공연이 끝나면 객석 여기저기서 휴대폰과 고성능 카메라가 올라오고, 배우들은 자연스럽게 촬영(?) 당한다. SNS에는 찬사와 함께 짧은 문장과 함께 사진과 영상이 실시간으로 퍼진다. 특히 뮤지컬 시장에서는 커튼콜 영상 하나가 티켓 판매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반가운 변화다. 과거에는 홍보 사진을 찍고, 광고를 집행하고, 언론 리뷰를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관객 스스로가 홍보팀이 된다. 실제 관객이 올린 한 장의 사진과 15초짜리 영상이 때로는 수백만 원짜리 광고보다 더 강력하게 퍼진다. 공연을 본다는 경험 자체가 이제는 “관람”에서 끝나지 않는다. 기록하고, 공유하고, SNS에서 다시 소비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래서 한국 공연장에서는 커튼콜 촬영이 점점 하나의 관람 문화처럼 자리 잡았다. 특히 팬덤 문화가 강한 한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좋아하는 배우의 무대를 기록하고 싶어 하는 마음,



© Onstage

그 순간을 오래 간직하고 싶은 감정 자체를 이상하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많은 관객들은 “마지막 인사 정도는 추억으로 남기고 싶다”고 말한다. 충분히 이해되는 이야기다. 공연은 비싸고, 짧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공연계 내부에서는 이 문화에 대한 피로감과 불편함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배우들과 해외 창작진들은 커튼콜의 의미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느낀다. 원래 커튼콜은 공연이 끝난 뒤 배우와 관객이 서로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는 마지막 순간에 가까웠다. 배우는 관객의 반응을 온전히 느끼고, 관객은 그날의 감정을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남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장면이 “촬영 가능한 시간”처럼 소비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 웨스트엔드나 미국 브로드웨이에서는 지금도 커튼콜 촬영을 제한하는 공연이 꽤 많다. 많은 한국 관객들은 이것을 단순히 저작

권 문제 정도로 생각한다. 물론 그것도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현지 공연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조금 더 미묘한 감각이 있다. 그들은 공연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작품의 일부로 본다. 배우가 인사하는 몇 분조차 단순 서비스 시간이 아니라 무대의 연장선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 문제는 최근 영국 공연계에서도 공개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다. BBC 라디오4 인터뷰에서 배우 레슬리 맨빌(Lesley Manville)은 공연 종료 후 휴대폰화를 들고 배우들의 인사를 촬영하는 관객들에 대해 “모욕적(insulting)”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현재 런던 국립극장에서 공연 중인 <위험한 관계(Les Liaisons Dangereuses)> 출연 중 나온 이야기였다. 그는 “박수를 치려면 치고, 아니라면 휴대폰을 꺼낼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발언은 단순히 한 배우 개인의 예민한 반응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은 공연예술이 디지털 시대와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가깝다.

특히 틱톡(TikTok), 인스타그램(Instagram), 유튜브 쇼츠(YouTube Shorts)가 공연 홍보의 핵심 플랫폼이 된 지금, 커튼콜 촬영은 더 이상 단순한 관객 행동이 아니다. 사실상 공연 마케팅의 일부처럼 작동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 공연에서는 마지막 커튼콜 순간에만 제한적으로 촬영을 허용하는 방식도 조금씩 등장하고 있다. 완전히 막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완전히 자유롭게 두기에도 어딘가 불편한 시대가 된 것이다. 특히 배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다. 두세 시간 동안 엄청난 감정을 쏟아낸 뒤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객석에 보이는 것이 박수치는 얼굴이 아니라 카메라 화면이라면 묘한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다. 어떤 배우들은 “관객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 점점 사라진다”고 말하기도 한다. 공연은 라이브 예술인데, 마지막 순간

만큼은 서로를 직접 바라보는 시간이길 바란다는 것이다.

라이브 공연의 현장성을 지키면서도 디지털 공유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

다만 문제는 ‘일관성 없는 메시지’에 있다. 어떤 공연은 커튼콜 촬영을 장려하고, 어떤 배우는 이를 무례하다고 느낀다. 관객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공연마다 규칙이 다르고, 배우마다 감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은 촬영 자체보다 ‘관객과 공연 사이의 합의’에 가깝다. 공연 중 휴대폰 사용이 배우와 다른 관객의 집중을 방해한다는 점에서는 업계 대부분이 동의한다. 그러나 커튼콜은 이미 공연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공연 바깥의 영역이 되어가고 있다.

오늘날 관객은 단순히 공연을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참여자다. 누군가에게 커튼콜 영상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기억 저장 장치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극장을 직접 찾지 못하는 사람들과 감동을 나누는 방식이 된다. 물론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맨빌의 말처럼, 공연의 감정을 몇 분쯤은 마음속에만 남겨두는 경험도 필요하다. 하지만 동시에 공연예술은 늘 시대와 함께 관객 문화를 바꿔왔다. 지금 극장이 마주한 과제는 스마트폰 시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를 공연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다시 정의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점점 사라지는 극장내 매표소

지역 공연장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매표소 운영을 줄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공연장이 지역사회와 맺어온 관계 역시 사라지고 있다. 아마 독자 상당수는 “그게 왜 문제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한국에선 더 이상 공연 티켓을 극장 매표소에서 구매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 공연장에서 매표소는 대체로 공연 시작 직전 잠깐 운영된다. 대부분의 관객은 온라인으로 예매하고, 현장에서는 티켓을 수령하는 정도의 기능만 수행한다. 심지어 그 짧은 접촉조차 두꺼운 유리벽 너머에서 이뤄진다. 관객과 직원 사이에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매표소는 환대(hospitality)의 공간이라기보다, 효율적인 처리(processing)를 위한 공간에 가깝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뜻은 아니다. 한국 공연 시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특히 뮤지컬 산업은 극도로 높은 회전율과 복잡한 좌석 운

영 시스템 위에서 발전해왔다. 인터파크나 멜론티켓 같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예매 문화 역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 만큼 정교하다. 관객들 또한 현장 구매보다 모바일 티켓과 빠른 입장을 선호한다. 문제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공연장이 점점 더 “공연을 소비하는 장소”로만 기능하게 된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형 공연장을 떠올려보자. 공연 시작 30분 전, 관객들은 로비로 몰려든다. 포토존 앞에 줄을 서고, MD를 구매하고, 음료를 들고 빠르게 객석으로 입장한다. 공연이 끝나면 대부분 곧바로 귀가한다. 극장에 오래 머물 이유도, 머물 수 있는 환경도 많지 않다. 반면 영국의 지역극장(regional theatre)들은 오랫동안 조금 다른 개념으로 존재해왔다. 공연이 없는 낮 시간에도 로비와 카페가 열려 있고, 주민들이 드나들며 시간을 보낸다. 학생들이 숙제를 하거나, 노인들이 따뜻한 공간에서 쉬

어가고, 지역 커뮤니티 모임이 열리기도 한다. 공연 관람 여부와 상관없이 극장이 하나의 시민 공간(civic space)처럼 기능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매표소 축소가 단순히 “온라인 예매 시대의 자연스러운 변화”로만 읽히지 않는다. 그것은 극장이 더 이상 지역사회와 접촉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처럼 받아들여진다.

한국은 애초부터 극장을 그렇게 사용해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민간 상업극장은 더 그렇다. 극장은 대부분 ‘목적형 공간’이다. 공연을 보기 위해 방문하고, 공연이 끝나면 떠나는 곳이다. 심지어 공연이 없는 시간에는 건물 전체가 닫혀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조금씩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립극장, LG아트센터, 세종문화회관 같은 기관들은 로비 프로그램이나 전시, 북 큐레이션, 낮 시간 개방



뉴카슬 라이브 시어터 매표소 모습 © ILOVESTAGE Image Library

등을 확대하고 있다.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머무를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지향하려는 시도다.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변화다. 왜냐하면 앞으로 극장의 경쟁 상대는 더 이상 다른 극장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숏폼 콘텐츠와 모바일 게임까지 포함해 사람들의 시간을 차지하려는 모든 플랫폼과 경쟁해야 한다. 그런 시대에 극장이 단지 “공연 시작 두 시간 전부터 운영되는 건물”로 남는다면 존재 이유

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중요한 건 매표소 자체가 아니다. 과연 극장은 공연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공간인가. 아니면 도시와 시민들에게 일상의 일부로 열려 있는 공간인가. 한국 극장들은 지금 그 질문 앞에 서서 과거 영국을 따라가려 하는 중이고, 영국은 한국의 과거를 따라가려 한다.

ILOVESTAGE 김준영 프로듀서
junyoung.kim@lovestage.com



KOREAN RESIDENTS SOCIETY
재영한인회

초대합니다

Invitation

제37대 재영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임선화 취임식

Inauguration of Sun Hwa Griffiths as Chairman

13th June 2026. 6PM

St. James Church
Bodley Road, New Malden KT3 5QE

<p> 취임식 : 6PM</p> <p> 식사 : 7PM - 9PM</p>	<p> RSVP: koreansocietyuk@gmail.com</p>
--	--

재영한인총연합회
Korean Society UK
회장 임선화 배상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휴람 의료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휴람은 상담 - 예약 - 검진진행 - 사후관리를 보호자 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 (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 (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 (수면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 (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 (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오전 4시간 49만원 ~ 110만원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14시 ~ 명일 12시경 퇴원 65만원 ~ 110만원

- 휴람 당일종합검진 + 수면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14시 ~ 명일 12시경 퇴원 115만원 ~ 186만원

- 휴람 숙박종합검진 + 뇌MRA, 심장CT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210만원 ~ 320만원

-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 뇌MRI, 심장초음파, 복부조영CT, 흉부(폐)CT
갑상선초음파, 경동맥초음파 +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2일간 진행(오전에만 검사 시행) 462만원 ~ 485만원

- 휴람 VIP종합검진 + PET-CT(전신암정밀검사), 복부비만CT, 관상동맥CT
뇌심장정밀혈액검사 + 2일간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해외동포 특별가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병원은 서울 지역에 있습니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에서 퀄리티 높은 의료서비스를
휴람 혜택 적용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검진-진료-수술-
치료까지 휴람이 원스탑 서비스로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한국문의 : +82 (0)70 4141 4040
카카오톡 : 010 3469 4040 (kakao ID: huraamkorea)
이메일 : huraam@huraam.kr
홈페이지 : www.huraamkorea.com

미소 하우스 (하숙, 민박)

뉴몰든역 3분, 하이스트리트 1분 거리 넓은 단독주택
출장 주재 연수 여행 집 구하기 전, 귀임 전 잠시
깨끗하게 정리된 1인 욕실룸~가족룸, 세탁 서비스
신선한 재료 사용 맛있는 아침 저녁 한식, 욕실용품
카드결제 가능, 홈 둘러보기 : www.misolondon.com
카톡 문의 : **misohouse** ☎ 0782 333 6807

11+, GCSE, A Level 수학과외

11/13/16+ 명문 공/사립 입학시험준비
GCSE, A Level, Further math
STEP, MAT, TMUA 최상위 명문대 입학시험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20년 이상 경력
☎ 07958 677 211

PORTFOLIO DEVELOPMENT & REFINEMENT
Art, Design & Technology
11+ · GCSE · A-Level · Foundation · BA · MA
영국 미대·아트스쿨 포트폴리오 전문 지도 인터뷰 준비
및 포트폴리오 리뷰 (1:1 맞춤) 영국 선생님
실제 입시 기준에 맞춘 실전 피드백 제공
Experienced Tuition in English
neryhs@hotmail.co.uk
07990913410
한국어 상담 가능

조은 하숙 (구 이모네)

뉴몰든역 도보 2분 거리. 런던 시내 접근 매우 편리
아침 저녁 최고 맛있는 한식 제공
1인실부터 가족룸까지 다양한 룸 완비
장·단기 출장 / 연수 / 가족 여행 환영
☎ 07817 921 280 | 카톡 : leedh022769

GCSE A level 수학

영국 수학교사 자격증 PGCE 보유 (영국 중등학교 교사경력)
지도학생들 UCL 비릇 명문 러셀그룹 대학교 합격시킨 경험
캠브리지대, 임페리얼 칼리지 지원 및 입학시험 지도
취약 부분 맞춤 지도, 시험 테크닉 제공
수업은 영어나 한국어로 온라인 진행
☎ 07508 218465 (여)

런던건축
City & Guilds
ACCREDITED
고객맞춤형가계/영국표준품질/철저한 사후관리
Fully Insured (10 Million)
· 하우스/레스토랑/사무실 · 신축/중축/변경 · 설계/디자인/카운실 허가
· 증명서 발급/설치/수리(가스/보일러/전기/언더히팅/에어콘)
· 인테리어/리퍼비쉬
Mobile. 07515 738 777 dyk8855@gmail.com

편안하고 아늑한 정 하우스

출장, 주재, 가족 여행, 집 구하기 전 임시거주 등
어떤 목적에도 적당한 게스트 하우스.
아늑한 리셉션, 초고속 인터넷, 세탁 서비스,
깔끔하고 맛갈스런 아침 저녁 제공, 카드결제 가능.
뉴몰든 역 10분, 집앞버스 213, K1. 구 올리브 하우스.
☎ 07908 522 109 카톡 ID : junhouse5

KS3, GCSE, A-Level 수학 과학 지도

경험이 풍부한 UMIST 전자 통신 공학 석사
선생님이 수학, 물리, 생물, 화학 과목들을
각 보드별에 맞게 잘 가르쳐 드립니다.
영국 지도 경험 10년 이상. (Zoom 수업 가능)
☎ 07846 350 561

런던 우체국 London Parcel Office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려면
세관/유럽 배송 문의 환영
www.lpouk.com
020 8569 2588 / 0789 790 2044

인벤토리 청소전문 - 서울클리닝

10년 노하우 인벤토리 청소 전문
처음부터 인벤토리 체크까지
책임지며 훼손된 부분 수리가 가능
☎ 07947 299 669 / 07432 703 156

GCSE, KS3 과학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수학 수업, GCSE, IGCSE 각 보드별 수업
(AQA Edexcel, OCR, Cambridge, WJEC).
Key stage 3, 13+ 준비, 식스폼 학교 입학시험 준비.
따라가기 힘든 Y5-Y11 학교 진도와 숙제 바드림.
런던대학 킹스컬리지 과학교육학 석·박사.
영국 지도경험 20년, 전직교사(여) ☎ 0794 162 5292

SOUL estate agents
BRITISH PROPERTY AWARDS
2019-2026
GOLD WINNER
서울부동산 | 020 8949 4989
158 High Street, New Malden, KT3 4ES

성악·음악이론 집중 레슨

서울대 음대 졸업
영국 왕립음악원(Royal College of Music) 석사
ABRSM·예중·예고·음대 입시 전문 지도
찬양·합창·취미 성악도 환영합니다
실력 있는 지도를 찾고 계신가요?
☎ 0791 914 0478

백프로 골프교실

골프관련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드립니다.
☎ 07770 392 060
baigpro@hotmail.com
Inner Drive Golf New Malden,
30 High St, New Malden KT3 4HE

생활광고 안내
1회: £15
2회: £25
3회: £30
이메일로 광고 내용, 게재 횟수,
6회: £50
연락처를 적어 보내주시면
8회: £65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12회: £90
koweekly@koweekly.co.uk
24회: £150

UK Top Tour

프리미엄 투어 / 의전 / 공항픽업 / 캡서비스
전문통역 / 벤츠 V-Class / E-Class
☎ 07879 405 139 카톡 : kingstonplus
(직원 모집 : 워홀 환영)

스마일캡

공항픽업 서비스, 간단한 학생 이사
친절히 모십니다.
☎ 07961 778 296

코리아 위클리리는 본지나 관련된 웹사이트에 실린 광고주의 정체를 어느 정도 확인합니다. 그러나 광고주나 광고의 정확성, 신뢰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서비스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광고, 기타 정보에 대해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본지에 실린 광고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코리아 위클리리는 광고주의 광고내용, 연락, 제품, 서비스와 관련하여 직접, 간접, 부수적, 징벌적, 파생적인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독자분들이 본지에 실린 광고주의 광고 내용 연락이나 제품, 서비스 구입 혹은 계약 이전에 나름대로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note that any adverts contained in Korean Weekly does not imply a recommendation or endorsement or approval by Korean Weekly Newspaper of any advertising claims or of the advertiser, its product, or services. Korean Weekly reserves the right to accept or reject any advertisement submitted for its newspaper publications and on its websites. While Korean Weekly employs its best endeavours to confirm the identity of the advertisers, it does not attempt to investigate or verify claims made in advertisements appearing in its Newspaper publications and on its websites. Korean Weekly disclaims any liability whatsoever in connection with advertising appearing in its newspaper and on its websites.

알고리즘의 풍요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의 안식’을 찾아서 ①

실리콘 벨리의 ‘새로운 복음’과 나무 십자가

2022년 11월 30일. 그날 세상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마치 밤눈이 쌓이듯 고요하게 그 축을 옮겼다. 캘리포니아의 한 기업이 ‘ChatGPT’라는 기이한 창조물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처음엔 그것이 기술의 바다에서 일어난 작은 포말일 뿐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차가운 알고리즘이 인간의 언어를 입고 속삭이기 시작하자 세상은 경악했다. 사용자 1억 명을 모으는 데 고작 두 달, 정복자의 진군과도 같았던 이 거대한 파동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인류의 영혼을 흔들기 시작했다.

나 역시 그 소용돌이의 목격자였다. 어느 늦은 밤, 평생을 바쳐 목상해 온 단어인 “기독교 신앙에서 은혜(Grace)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이 인공지능에게 물었다. 답변은 고작 3초 만에 돌아왔다. 그 문장은 신학 석사 논문의 결론처럼 정교했고, 수십년간 강단에서 외쳤던 나의 설교보다 분명했다. 경이로움 뒤에 찾아온 것은 심장을 찌르는 듯한 서늘한 두려움이었다. 기계가 3초 만에 쏟아내는 정보의 폭포 앞에서, 우리는 혹시 가장 본질적인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솟구쳤다.

손끝의 전능함이 가져온 고립의 파라독스

돌이켜보면 이 변화는 2007년 ‘아이폰’이라는 작은 유리 조각을 치켜들었을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우리는 주머니 속에 슈퍼컴퓨터를



넣고 무한한 지식의 바다에 접속한다는 사실에 환호했다. 그러나 그 신비는 무서운 속도로 ‘당연함’의 자리를 꿰찼고,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생존의 필수품이 되었다.

현대인은 하루 평균 150번 넘게 스마트폰을 확인한다고 한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6분마다 한 번씩 차갑게 빛나는 사각형 화면 속에 영혼을 매어두는 셈이다. 우리는 ‘손끝의 전능함’을 소유하게 되었다. 길을 잃으면 위성을 믿고, 외로움이 밀려오면 SNS 가상 세계의 박수를 구걸한다. 모든 욕구가 즉각 해소되는 이 효율적인 세상을 실리콘 벨리는 ‘새로운 복음’이라 선포한다. 하지만 우리는 빛의 속도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고립 속에 박제되어 가고 있다.

목양의 길을 걷다 보면 성도들의 눈동자에서 깊은 피로와 고독을 읽게 된다. 그들은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 박식하지만, 그 지식의 성채 아래 영혼은 마른 논바닥처럼 비명을 지르고 있다. 과거 낡고 묵직한 주석서를 넘기며 정답 주변에 흩어진 신앙 선배들의 고뇌를 마주하던 시절,

그 ‘느린 걸음’은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거룩한 산책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3초 만에 원하는 정보만 낚아채고 창을 닫아버린다. ‘우연한 은혜’와 깊은 침잠의 공간은 사라지고, 지식의 표면만 스쳐지나는 ‘정보의 홍수 속 지혜의 가뭄’이 시작된 것이다.

알고리즘의 감옥, 확장 편향이라는 비늘

우리의 일상은 이제 알고리즘이 직조한 정교한 거미줄 속에 갇혀 있다. 유튜브와 SNS는 내가 미처 의식하기도 전에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대령한다. 보이지 않는 종북(從僕)이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오니 편리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함정이다. 알고리즘은 결코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동의하는 것, 내 생각의 틀을 공고히 해줄 것들만 보여 주는 사이, 우리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 속에 갇힌 눈 먼 자가 되어간다.

비극적이게도 우리의 신앙조차 이 지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각자의 취향에 맞는 설교만 골라 듣다 보

니 신앙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진리의 균형은 무너진다. 성경은 이미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잠언 14:12)고 경고하셨다.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이 알고리즘이 빚어낸 환영일 수 있다는 의심을 잊어버린 채, 오직 내 목소리의 메아리만 듣다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놓치고 마는 것이다.

마를수록 들어키는 소금물, 영혼의 기갈

우리는 왜 이토록 고단한가?. 1초마다 업데이트되는 피드의 홍수 속에서 감각이 난도질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머리는 과열된 기계처럼 돌아가고 생각은 파편이 되어 흩어진다. 2003년 런던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시절, 육체는 고달팠으나 삶이 단순했기에 누렸던 그 깊은 평안은 이제 전설처럼 멀어졌다.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이라는 거대한 우물가에서 매일 물동이를 내리지만, 그 물은 마실수록 갈증을 유발하는 소금물과 같다. 정보는 넘쳐나나 배부르지 않고, 수천 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안도감은 스마트폰의 불빛이 꺼지는 순간 시린 고독으로 변한다. 데이터의 나열은 우리 존재의 신비를 설명할 수 없으며, 정교한 알고리즘은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질 수 없다. 성 어거스티누스의 고백처럼,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 마음은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복음 위의 복음, 나무 십자가의 진실
실리콘 벨리의 선지자들은 빠르

고 쉬운 지식과 무한한 연결을 약속한다. 하지만 그들은 지식을 감당할 지해도, 연결을 유지할 사랑의 근육도 주지 못한다. 반면 수천 년을 뚫고 살아 숨쉬는 진짜 복음은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

나사렛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더 최신의 정보를 약속하신 적이 없다. 그분은 오히려 우리를 소란스러운 질주로부터 멈춰 세우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고 말씀하신다.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거룩한 안식을 약속하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알고리즘의 최적화된 경로가 아니라, 비효율적이고 느리더라도 주체적인 영적 결단을 통해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편리함이라는 우상에게 바쳐버렸던 거룩한 유산들, 즉 연산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영성의 신비와 인격 사이의 파스한 사귀를 회복해야 한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무엇에 갈급해하고 있는가? 알고리즘이 약속한 차가운 유토피아가 아닌, 생명이 약동하는 그 좁고도 영광스러운 길로의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다. 밤은 깊었으나 새벽을 향한 갈망은 뜨거워진다. 셰필드의 작은 서재에서 차가운 화면의 불빛을 끄고 비로소 마주하게 될 영원한 빛을 향해, 나는 이제 첫 발자국을 내딛는다.



박상도 목사
셰필드한인교회 담임

1991년 창간

www.koweekly.co.uk

뿌리깊은 나무처럼 성실하게 변함없는 오랜 친구처럼 든든하게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듯

코리안위클리는 35년째 성실하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바른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코리안위클리는 여러분을 찾아가는 벗입니다.

한결같은 마음, 믿을 수 있는 비즈니스 동반자 - 코리안위클리

코리안위클리





재영한인교회연합회

KCA in the UK

Hanbeel Church 런던한빛교회

바른 신학 · 바른 교회 · 바른 생활

주일예배

1부 : 10:00 am (한빛센터)
2부 : 2:00 pm (본당)
유치부 : 2:00 pm (본당)
유초등부 : 2:00 pm (본당)
중고등부 : 2:00 pm (한빛센터)
청년부 : 4:30 pm (한빛센터)

주중예배

수요예배 : 8:00 pm (한빛센터)
새벽예배 : 5:30 am (한빛센터)
수요토들그룹 : 10:00 am (한빛센터)

담임목사 : 김동윤

홈페이지 : www.hanbeel.org / 전화 : 0208 546 3600
한빛센터 : 122 London Rd., Kingston, KT2 6QJ
본당 : 한빛교회/KMC, 13 Fairfield South, KT1 2UJ

아름다운교회

ST. JOHN'S CHURCH Spencer Hill, Wimbledon SW19 4NZ



주일예배: 오후 2시
새벽예배: 6:00 am (월~금)

새벽예배는 줌으로
ID: 840 7687 8395
PW: 024086

담임: 백장현 목사
bkclondon@gmail.com
07748 500 038

www.bkclondon.com

런던센트럴순복음교회

교회 4대 목표 십자가 복음과 사랑·영생을 위한 중보기도·다음 세대의 회복과 부흥·주대 교회의 회복

예배장소

The Borough Welsh Congregational Chapel
90 Southwark Bridge Rd., London, SW1 0EX

예배시간

주일 오후 2시

담임목사 이상보

문의 07449 767905

홈페이지 www.londoncentralchurch.org



구세군 런던한인교회는 다양한 문화(Inter-Cultural Church)와 세대(Inter-Generational Church)가 함께 어우러져 조화로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교회입니다.

주일예배: 오전 11시
109 Kingston Road, London SW19 1LT
wimbledon@salvationarmy.org.uk



Weybridge White House

말씀과 기도의 집

The WCRD and Prayer house

주일예배 오전 11시

담임: 김호근 목사

주소: 77 Heath Road, Weybridge, Surrey KT13 8TN
E-mail: wphlondon@hotmail.com
문의: 장순영 선교사 07917-726-839

웬블던 꿈이있는교회

주일 오전 10시 30분
The Priory Church of England primary School, Queen's Rd, London SW19 8LX

· 주일학교는 같은 시간에 다른 방에서 진행됩니다.

담임목사 이영주

godsvisionchurch.org
07949947800

mokjada

info@godsvisionchurch.org



센트럴 꿈이있는교회

주일 오후 2시
Welsh Baptist Church, 30 Eastcastle Street, London, W1W 8DJ

· 주일학교는 같은 시간에 다른 방에서 진행됩니다.

담임목사 이영주

godsvisionchurch.org
07949947800

mokjada

info@godsvisionchurch.org



런던 주찬양교회

Praise The Lord Church of London

1. 예배와 찬송이 넘치는 교회
2.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
3. 성령과 기도로 회복되는 교회
4. 전도, 헌신, 봉사로 하나되는 교회

■ 주일 예배 : 오후 2시 ■ 담임 목사 : 김주경

■ 문의 : 07528 295 356 / ukjkm11@gmail.com

160 Green Lane, Morden, Surrey SM4 6SR

옥스포드 선교교회

Oxford Mission Church

주일예배: 10.30am
장소: Wycliffe Hall Chapel
주중예배: 수, 금 7.30pm
새벽예배: 매일 6am

담임목사: 전계상
oxfordmissionchurch@gmail.com
www.oxfordmissionchurch.wixsite.com/home

런던벤틀교회

BETHEL CHURCH OF LONDON

예배시간

주일예배 : 11AM
새벽예배 (월~금) : 6AM
수요예배 : 8PM
저녁예배 (일, 화, 목) : 8PM

문의 : 07584 027756 이승복 담임목사
Unit 1, 167A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런던새중앙교회

The Love Of Jesus

주일예배 : 오후 2시
새벽기도 : 오전 6시
화요성경공부 : 오후 1시

이메일 : incc@naver.com
전화 : 07790553317
예배장소 : St. John's Church, Kingston Road, New Malden, Surrey, KT3 3RX
담임목사 : 황형식

런던영광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 오후 2시
주일학교 : 오후 2시
새소식반 : 금요일 오후 3:30~6:00
Mothers & Toddlers : 수요일 10:30~12:00

연락처 : 안병기 목사 / 김경순 사모
revbkahn@gmail.com / mksahn@gmail.com
07990 760354 / 07747 325242

On a rainy day Jesus will be your umbrella!

글로리아 센터

정소년: 10시, 청년 5시 (High St, New Malden, KT3 3PY)

교회

장년 & 주일학교 교사 (39 Ewell Road, Surbiton, KT6 6AF)

Gloria Church
조성영 목사 07914069732

런던 [시내, 센트럴] 예수비전교회

London Jesus Vision

예배: 주일 오전 11시 / 수요일 오후 7시
장소: Paget Christian Centre
18 Randell's Rd, London N1 0DH

지하철: St. Pancras Int. (유로스타), Kings Cross역 도보 7분 교회 주변 무료 주차 가능

담임목사: 이희영
카톡 ID: revheui
<http://ljvc.org>
020 8346 2070 / 07828 267762

케임브리지 열림교회

Cambridge Yeolim Church

예배장소
Castle Street Methodist Church, Castle Street, Cambridge CB3 0AH (주차장은 2 St Peter's Street, CB3 0AH)

예배시간 : 주일 오후 2시

담임목사 : 김태규

문의 : 01223 573275 07837 840294
www.cambridge.onmam.com

웬블던한인교회

Wimbledon Korean Baptist Church

예배장소 : Wimbledon Baptist Church
129 The Broadway
Wimbledon SW19 1QJ

예배시간 : 새벽기도 online → 오전 6시(화~금)
금요기도회 → 오전 10시(격주)
주일예배 → 오후 2시

문의 : 권종현 목사
enochwith@yahoo.com

런던순복음교회

LONDON FULL GOSPEL CHURCH

"예배가 살아있는 행복한 교회!"

· 주일예배 (한국어 / 주일학교 / 인터네셔널)
1부 : 오전 8:30 | 2부 : 오전 10:30 | 3부 : 오후 1:30
유아, 유초, 중교 : 오전 11시 | 인터네셔널 : 오전 9시

· 주중예배 (수요 / 금요 / 새벽)
수요 : 저녁 7:30 | 금요 : 저녁 8시 | 새벽 : 월-금 오전 6시

· 담임목사 김용복

www.lfgc.co.uk | 0208 944 6781
lfgcuk0691@gmail.com | [karra0510](http://www.karra0510.com)
37 West Bamed Lane, Raynes Park, SW20 0BL

리버풀한인교회

Liverpool Korean Church

주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

· 주일예배 : 오후 1시
· 담임목사 : 지성구
· 카톡ID : ukm0691

· 예배장소 : St Philemon's Church
78 Admiral St., Toxteth, Liverpool L8 8BR

· 인스타 : @liverpoolkoreanchurch.org
· 홈페이지 : liverpoolkoreanchurch.org

유럽기도선교

Prayer Mission Europe

복음에 빛진 한국 교회가 겸손, 희생, 섬김의 마음으로 영국과 유럽을 위해 기도로 진행되는 선교사역

담당사역자 : 김남진 목사
07547 373 864

런던새로운교회

London New Church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 공동체

· 주일예배 : 오후 2시 30분
· 새벽예배 (월-금) : 오전 5시 30분
· 금요집회 : 저녁 8시

· 담임목사 : 권순신
· 전화 : 07795 467248
· 홈페이지 : www.gp21.org

Emmanuel Church, Dudley Drive, Morden, SM4 4RJ

킹스턴의 새로운 얼굴, 임혜정 신임 부시장을 만나다

“한인 사회가 다져온 신뢰의 기반 위에,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적 플랫폼 만들 것”

영국 한인 사회의 중심지인 킹스턴구에서 또 한 번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킹스턴구 톨워스(Tolworth) 지역구의 임혜정 의원이 신임 킹스턴 부시장 (Deputy Mayor)으로 선출된 것이다. 지난 2024~2025년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박옥진 전 부시장에 이어 한국계 인사가 연속으로 킹스턴구의 중책을 맡게 되면서 한인 사회의 위상이 한층 더 공고해졌다는 평가다. 임 부시장은 구의회 입성 전부터 에드 데이비 자유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 다년간 활동하며 지역 커뮤니티와 정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온 인물이다. 임기 1년간 킹스턴의 '얼굴'로 활약하게 될 임 부시장에게 서면 인터뷰로 취임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들었다.

Q. 먼저 킹스턴구 부시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민자로서 영국 사회에서 성장하며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선출은 저 개인의 성취라기보다, 영국 사회 안에서 우리 한인 동료들이 쌓아온 성실함과 공동체 정신이 주류 사회로부터 인정받은 상징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한인 차세대들에게 '우리도 영국 사회의 중심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어 무엇보다 기쁩니다.

Q. 올해 지방 선거에서 역대 최다인 5명의 한인 의원이 배출됐습니다. 한국계 정치인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어떻게 체감하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한인 사회가 주로 비즈니스나 교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부지런한 공동체로 인식되었다면, 이제는 지역 정치와 공공 리더십 영역에서도 당당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한국계라는 배경을 낯설게 보기보다 자연스러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가 더 이상 영국 사회의 '방문자'가 아니라, 이 지역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계기입니다. 다만 저는 단순히 '한국계 정치인'으로 기억되기보다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신뢰받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경이 아니라 주민을 향한 진정성이니까요.

Q. 구의원이 되기 전, 자유민주당 대표인 에드 데이비 경(Sir Ed Davey)의 보좌관으로 오랜 기간 일하셨습니다. 당시의 경험이 의정 활동에 어떤 밑거름이 되었나요?

에드 데이비 대표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시간은 제 정치 인생의 가장 큰 학교였습니다. 민원 해결부터 정

책 결정까지 최전선에서 지켜보며 정치의 본질은 결국 '사람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훌륭한 정치인은 거창한 담론만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를 끝까지 듣고 해결하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배운 '경청'의 자세가 지난 선거 과정은 물론, 현재 부시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Q. 보좌관이라는 안정적인 역할을 넘어 직접 선출직 의원에 도전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궁금합니다.

주민들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주거 문제, 누군가에게는 교통이나 교육, 치안 문제 등 생활 속 작은 불편을 책임 있게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고 싶었죠. 그리고 영국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정치와 공공 영역이 결코 먼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Q. 영국 지방 정부에서 '시장과 부시장'의 역할은 한국과는 조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1년간 어떤 활동을 하게 되시나요?

영국의 시장과 부시장직은 임기가 1년으로,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기보다는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얼굴'에 가깝습니다. 영국 왕실의 역할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겠네요. 학교 방문, 자선 활동, 다양한 커뮤니티의 문화·교육 행사 등 연간 600건이 넘는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킹스턴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공동체를 결속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번 임기 동안 서로 다른 배경과 세대를 가진 주민들이 어우러지는 포용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지역 정치와 공공 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Q. "소수 민족의 목소리를 시 행정에 반영하겠다"는 공약은 어떻게 실현하실 계획인가요?

말에만 그치는 대표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가교가 되겠습니다. 우선 한인 사회를 비롯한 지역 내 다양한 소수 민족 커뮤니티가 시 행정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정기 간담회와 네트워크 창구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특히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행정 정보에서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지역사회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보다 따뜻하고 포용적인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Q. 영국 정계 진출이나 공공 부문 기여를 꿈꾸는 차세대 청년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처음부터 거창한 정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원봉사와 지역 활동에서 한 걸음씩 시작했습니다. 정치는 특별한 사람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또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문화적 경험은 다문화 사회인 영국에서 엄청난 강점이 됩니다. 다양성을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자신만의 무기를 믿고 당당하게 도전하길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인 동포 여러분께 인사를 전해 주십시오.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과 격려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성취는 오랜 시간 영국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신뢰를 쌓아오신 한인 1세대 어르신들과 동포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한인 1세대가 견고하고 안전한 '기반(하드웨어)'을 만들어 주셨다면, 저희 1.5세대는 그 위에 공동체의 가치를 채우는 '내용(소프트웨어)'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아가 다음 세대로 갈수록 이 콘텐츠가 더욱 풍성해지도록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 믿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한인 사회의 자긍심이 되는 정치인, 동시에 모든 주민에게 신뢰받는 부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집부



임 부시장과 함께 킹스턴을 이끌 신임 시장으로는 스리랑카 출신의 4선 베테랑 타이 태알란(Thay Thayalan) 의원이 선출되었다. 두 사람은 같은 톨워스 지역구 자유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남다른 호응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 부시장과 공식 일정을 함께 수행할 동반자 Deputy Mayor's Consort, 남편 이용 씨



제22회 런던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일시 : 7월 28일 (화) ~ 31일 (금) 오전 9:30 ~ 13:30

모집인원 : 선착순 60명 (리셉션 ~ Y6)

**등록비 : 1차 등록 7월 4일까지 £45 / 2차 등록 7월 5일 이후 £50
(교재 간식 T셔츠 포함)**



<https://forms.gle/b8vSrhMBMN33zRy6>

장소 : 런던영광교회

Worcester Park Baptist Church, The Avenue, Worcester Park KT4 7EW

문의 : 김경순 사모 07747 325242

새소식반 안내

올해로 22년째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 방과 후 성경공부 프로그램인 새소식반 (Good news club)을 소개합니다.
각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거나 혹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으신 학부모들을 위한 자녀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학습내용 : 어린이 전도협회 새소식반 공과 과정 (간식 제공, 회비 없음)
- 대상 : 리셉션 ~ Y6
- 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4:00 ~ 6:00
- 장소 : 런던영광교회
- 문의 : 김경순 사모 07747 325242 / mksahn@gmail.com